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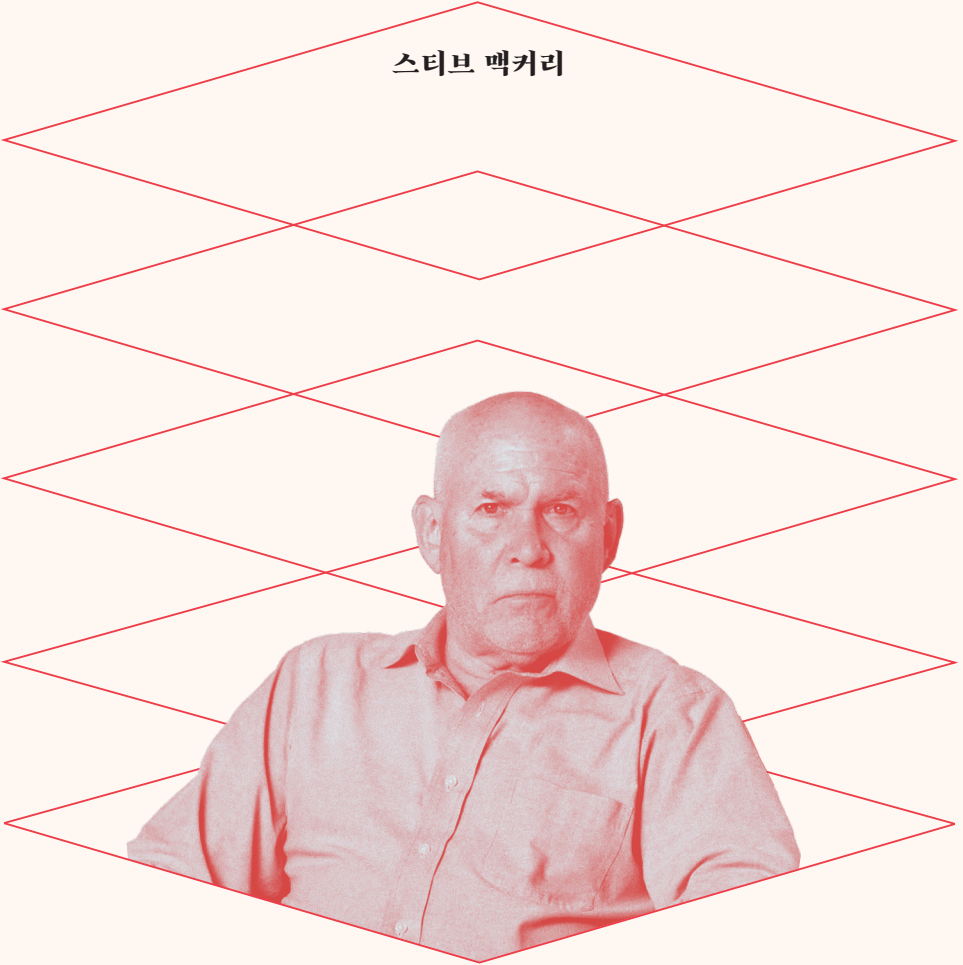
ONE GREAT MIND,  
THREE GREAT QUESTIONS



위대한수업  
GREAT MINDS

# 한 컷의 세계

스티브 맥커리



Steve McCurry



이 책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전재, 전송, 배포할 수 없고, 기타 다른 형태로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b>프롤로그</b>	<b>5</b>
강사 소개   스티브 맥커리	6
강의를 시작하며   나는 왜 전쟁터로 갔는가?	10
강의 속 핵심 개념	14
<b>1강 인도로 가는 길</b>	<b>16</b>
<b>2강 폭우 속의 사람들</b>	<b>24</b>
<b>3강 아프가니스탄 소녀</b>	<b>32</b>
<b>4강 촬영의 기술</b>	<b>40</b>
<b>강사 연보</b>	<b>48</b>

프롤로그

천 마디 말보다 강렬한 울림,  
한 장의 사진에 담긴 그날의 진실

전쟁터를 누비는 사진작가, 사진 저널리즘의 창시자  
스티브 맥커리가 말하는 한 장의 사진 속에 세계를 담는 법

## 강사 소개



Steve McCurry

## 스티브 맥커리

● 스티브 맥커리(Steve McCurry)는 1979년에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 1991년에 있었던 제1차 걸프전, 그리고 2001년에 벌어진 9·11 테러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의 굵직한 변곡점을 카메라에 담아 세상에 알려 온 사진작가입니다. 그중 ‘아프간 소녀’ 사진이 1985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를 장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1986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보도사진가 협회 ‘매그넘’에 소속되어 대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국경을 초월하여 다양한 인간 군상과 대자연의 있는 그대로 사진에 담아 전해 온 스티브 맥커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80년에 로버트 카파 금메달을 수상했고, 1985년에는 올리비에 레봇 기념상을, 2002년 유엔국제사진위원회 선정 특별 공로상과 2006년 로웰 토마스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마

침내 국제 사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됩니다.

처음 카메라를 든 지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스티브 맥 커리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삶의 비극과 희극이 벌어지는 생생한 삶의 순간을 포착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One Great Mind, Three Great Questions**

# Steve McCurry

스티브 맥커리

---

## 나는 왜 전쟁터로 갔는가?

---

한 장의 사진이 때로는 천 마디의 말보다 더욱 긴 울림을 남기기도 합니다. 1985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표지를 장식한 ‘아프간 소녀’ 사진이 그랬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오늘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이 ‘아프간 소녀’ 사진은 과연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197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1991년 제1차 걸프전, 그리고 2001년 9·11 테러까지, 스티브 맥커리는 이 모든 참혹한 삶의 순간마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분쟁 지역에 뛰어 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아 세상에 알려 왔습니다. 아프간 소녀 사진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강렬한 눈빛으로 카메라 렌즈를 주시하는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사진은 당시 난민촌의 비참한 현실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스티브 맥커리를 세계적인 사진가 반열에 올려놓았지요.

이렇게 평생 전장을 누비며 ‘사진 저널리즘’의 대명사가 된 스티브

맥커리지만, 강연 중에 그는 “처음에는 사실 분쟁 지역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레이트 마인즈, 위대한 수업> 스티브 맥커리 편은 이렇게 솔직하고 평범한 청년이던 그가 지금의 위대한 사진작가가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밟아 왔는지, 세계적인 사진작가로 도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거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좋은 사진을 찍는 노하우도 공개합니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사명감으로 매일 셔터를 눌러 왔다는 스티브 맥커리의 진솔한 이야기를,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성공의 공식을 만나 봅니다.

• 본 강의 영상은 웹사이트 [www.kmooc.kr](http://www.kmooc.kr)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의 속

### 핵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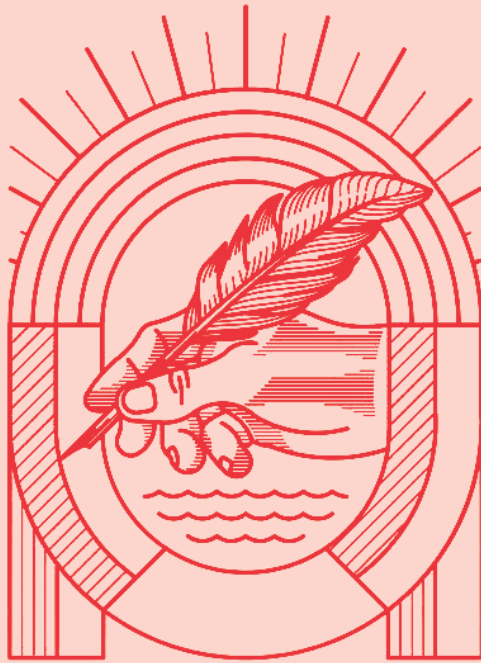
**홀리 축제(Holi)** \_ 인도와 네팔 등지에서 거행하는 힌두교의 봄맞이 축제로, '색채의 축제'로도 불립니다. 2월 말과 3월 중순 사이 이틀간 시행되며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로를 향해 물감이 든 물총을 쏘거나 물풍선을 던지는 등 서로에게 다양한 빛깔의 색 가루와 물감을 묻히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를 통해 서로 간에 묵은 앙금을 풀고 화합과 용서의 시간을 갖고 봄이 온 것을 한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_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벌어진 전쟁으로 1979년부터 1989년까지 9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85만에서 15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파키스탄과 이란 등지로 피난을 떠나 난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스티브 맥커리의 대표작인 '아프간 소녀' 역시 1984년 이 전쟁으로 고아가 되어 홀로 난민 생활을 하던 전쟁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후 사진은 유력 잡지에 표지로 실리며 전 세계에 전쟁의 참상을 알리게 됩니다.

**직관** \_ 직관은 사유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신 작용을 의미합니다. 스티브 맥커리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바로 이 직관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잘 찍겠다는 생각을 버린 채 그저 밖으로 나가 모든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직관에 의존할 때, 비로소 대상들 사이의 관계와 배치가 한눈에 들어오며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꾸준히 사진을 찍어 그러한 감각을 몸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 1강



×

## 인도로 가는 길



“저는 항상 색상이 보다 정확하고, 보다 솔직하고, 보다 진실되게 삶을 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색상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전달하려면 색은 필수입니다.”

— 1 강

미리 보기

18

45년 차 베테랑 사진작가인 스티브 맥커리는 학창 시절에는 영화를 전공하던 영화학도였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안정적인 지역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결국 신문사를 그만두고 인도로 향합니다. 그렇게 인도에 첫발을 내디딘 후 스티브 맥커리는 이후 여든 번을 더 인도를 오가며 카메라에 인도의 삶과 대자연의 모습을 담아 냈습니다. 이토록 강렬하게 그를 이 미지의 세계로 이끈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사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사진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게 된 스티브 맥커리의 출발점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키워드

색

## 세 가지 위대한 질문

• 첫 번째 질문 •

스티브 맥커리에게 사진이란 무엇인가요?

• 두 번째 질문 •

사진작가로서 첫발을 내디딘 인도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 세 번째 질문 •

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또 사진이 왜 우리 삶에서 중요한가요?

• 첫 번째 질문 •

스티브 맥커리에게 사진이란 무엇인가요?

—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스티브 맥커리** “저에게 사진은 세상을 감상하는 방법이고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고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의 스티브 맥커리가 되기까지 여정은 열아홉 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1년간 살았어요. 스웨덴과 암스테르담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럽 전역을 돌았어요. 저는 1년간 지냈던 유럽에 매료되었고, 제 인생에서 어떤 직업을 택하든 여행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구할 때 지역 신문에 취직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렇게 신문사에서 2, 3년간 일하는 동안 밖에 나가서 지역 사회와 일상을 촬영하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일이 반복되다 보니 다시 여행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기사로 읽으면서 항상 가고 싶었던 곳으로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상사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면서 인도로 가는 편도 항공권도 끊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얼마나 머물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꼭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때가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떠났습니다.”

21

• 두 번째 질문 •

사진작가로서 첫발을 내디딘 인도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22

**스티브 맥커리** “비행기에서 내린 첫 순간을 기억해요. 더위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오니 사람들로 붐비더군요. 그런 인파는 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공항에서 바로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가방을 여러 개 들고 탔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붐벼서 버스 안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전율이 흘렀습니다. 살아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눈앞의 광경과 냄새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그렇게 인도 여행이 시작됐어요. 인도는 종교, 인종, 지리적으로 정말 다양한 나라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영감을 많이 주는 곳이죠. 그래서 책에서 읽어 봤던 곳들을 쉬지 않고 돌아보고 탐험했어요. 첫 인도 여행 2년 동안 그 문화 속을 깊이 파고들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인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여행 이후로 인도를 여든 번은 더 다시 찾았지요. 저는 이걸 굳게 믿고 있어요. 만약 어떤 장소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거나 영감을 주는 좋은 장소를 찾았다면, 계속 다시 찾아가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 세 번째 질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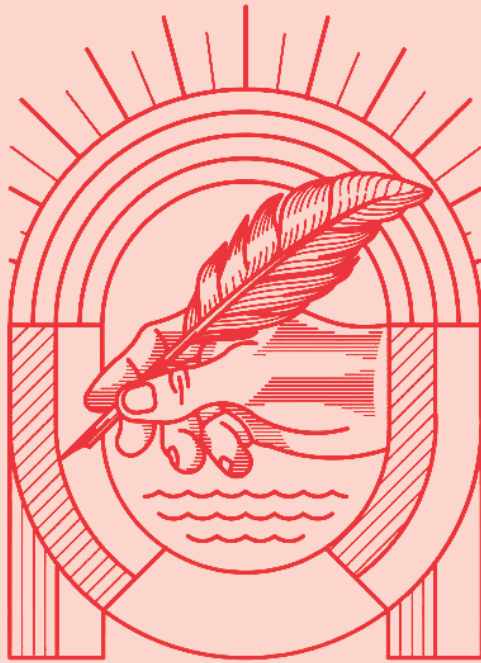
사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또 사진이 왜 우리 삶에서 중요한가요?

—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23

**스티브 맥커리** “제가 촬영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사 중 하나는 바로 색의 축제라 불리는 인도의 ‘홀리’ 축제인데요, 색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색상이 보다 정확하고, 보다 솔직하고, 보다 진실되게 삶을 전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색상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 수도원이나 힌두교 사원의 문화 상당 부분도 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전달하려면 색은 필수입니다. 저는 흑백 사진도 좋아하지만 컬러 사진이 더 완전한 얘기를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우리 인생을 더 충만하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한 방법이에요. 사진을 통해 제 삶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사진은 제게 세상을 보고 배우는 방법을 알려 줬습니다. 사진이 없었다면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사진 덕분에 독특하고 아름답고 때로는 두려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훌륭한 여행이었고 대단한 배움의 경험이었습니다. 사진은 제 삶을 보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2강



✕

## 폭우 속의 사람들



“물이 정말 더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자신을 온전히 다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여덟 시간씩 물속에 있었어요.”

## — 2 강

### 미리 보기

26

영원히 남을 찰나의 기록을 위해 스티브 맥커리는 언제나 마음에 끌리는 장소를 찾아 나섭니다. 그중 한 곳이 우기<sup>雨季</sup>의 인도였습니다. 폭우가 세차게 들이치고 때로는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 험겨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에 빗물이 들어차 필름을 다 버리기도 하고, 거머리에 물려가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스티브 맥커리가 계속해서 우기의 인도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 들어 봅니다.

키워드

영감

## 세 가지 위대한 질문

• 첫 번째 질문 •

영감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요?

• 두 번째 질문 •

45년간 사진가로 일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 세 번째 질문 •

좋은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 첫 번째 질문 •

영감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요?

—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스티브 맥커리** “영감은 당신의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술적 욕구와 삶에 대한 호기심에서요. 관심사가 무엇이든 간에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계속하길 원한다면 영감은 당신을 더 많이 배우게 하고, 더 만들고, 창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얻고 싶으면 일을 해야 합니다.

몇몇 유명 예술가들은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앉아서 영감 얻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죠.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영감이 당신 어깨에 내려앉을 거예요. 뮤즈가요! 그렇게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국가나 도시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미얀마에 수십 번 갔는데요. 심지어 카메라가 없어도 그곳에 있는 것이 정말 좋아요. 사진은 보너스죠. 마음에 끌리는 장소를 찾는 건 언제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말이죠.”

29

• 두 번째 질문 •

45년간 사진가로 일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30

**스티브 맥커리** “저는 인도에서 우기를 두 번 겪어봤어요. 폭우가 굉장히 세계 장시간 동안 쏟아졌어요. 때때로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우산을 쓰고 촬영했는데 렌즈가 빗물에 젖어서 계속 렌즈를 닦아야 했어요. 바람도 거션어요. 때로는 바람을 마주해서 사진을 찍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럼 우산이 등에 납작하게 찌부러져요. 정말 힘들죠. 우기가 가장 극적일 때는 도시가 범람할 때입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오를 정도로 비가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어요. 우기를 받아들이고 그냥 빗물에 젖고 물 안에서 사람들과 다니며 기회를 노리는 거죠. 물이 정말 더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자신을 온전히 다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여덟 시간씩 물속에 있었어요.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카메라 가방을 메고 찍힌 제 사진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 불편한 모습이 잘 담겨 있거든요.”

• 세 번째 질문 •

좋은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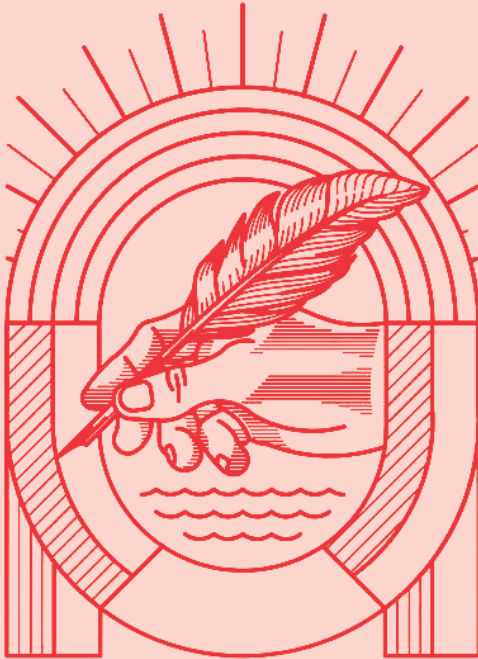
—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31

**스티브 맥커리** “인도를 여행하면서 저는 인내심과 관찰력을 키울 수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사진작가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한번 떠나 보세요. 멋진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찍는 것들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극적인 이야기였어요. 모든 어려움들이요. 저는 그 장소들에 매료되었고 계속 그곳에 관해 탐구하고 배우고 싶었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익숙한 것들은 사진에 담기 어렵습니다. 너무 익숙한 상황은 낯선 장소만큼의 매력과 경이로움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잘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야 그곳에 대해 배우고 탐험하고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낯선 외부인, 여행자로 시작하지만 점점 그들의 삶에 함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주 멋진 일이죠. 저도 놀라운 상황들을 경험했고 그 속에 저를 던졌더니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에 머물면서 상황을 꿰뚫어 보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3강



✕

## 아프가니스탄 소녀



“아이는 웃고 있지 않지만 쏘아보지도 않아요. 강렬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놀라운 사진이 되었지요.”

### — 3 강

#### 미리 보기

34

한 장의 사진은 때로는 또렷한 외침이 됩니다. 그렇게 스티브 맥커리가 1984년에 찍은 '아프간 소녀' 사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난민의 아픔과 현실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사진 속 카메라를 응시하던 소녀의 눈빛은 백 마디 말보다 강렬했죠. 하지만 그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설득이 없었다면, 그래서 스티브 맥커리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면, '아프간 소녀' 사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부터 '아프간 소녀'라는 걸작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 숨겨진 여정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또 사진이 우리 삶에서 어떤 고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키워드

아프간 소녀

## 세 가지 위대한 질문

### • 첫 번째 질문 •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 중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진은 어떤 것인가요?

### • 두 번째 질문 •

어떻게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을 촬영할 생각을  
하셨나요?

### • 세 번째 질문 •

사진작가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시나요?

### • 첫 번째 질문 •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 중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진은 어떤 것인가요?

—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스티브 맥커리 “제 뒤에 있는 이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샤르바트 굴라입니다. 1984년 파키스탄의 난민 캠프에서 찍었죠. 당시 파키스탄에는 약 200만 명의 아프간 난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전쟁으로 조국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캠프에서 학생들을 둘러보다가 구석에서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바로 샤르바트 굴라였죠. 이런 놀라운 얼굴과 굉장히 예리한 눈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그날 아침 찍고 싶었던 사진이 바로 이 소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샤르바트는 저곳에 1분 정도 앉아서 렌즈를 응시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일어나서 나가 버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카메라에 뭐가 찍혔든 그게 전부라는 것어요. 그런데 사진 속 모든 것들이 아주 완벽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죠. 아이는 웃고 있지 않지만 쏘아 보지도 않아요. 강렬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할 뿐인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놀라운 사진이 되었지요. 샤르바트의 사진은 35년 전 사진인데도 여전히 공감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감동을 받고 또 사진에 호응합니다.”

• 두 번째 질문 •

어떻게 전쟁 중인 아프카니스탄을 촬영할 생각을 하셨나요?

—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38

**스티브 맥커리** “오래전에 파키스탄의 한 호텔에서 아프간 난민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는 저에게 사진작가냐고 물었고, 자신의 나라가 폭격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세상에 알릴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프카니스탄에 가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기록해 달라고 했죠.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어요. 교전 지역에서 일해 본 적이 없었으니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후로 40년간 총 서른 번을 갔던 아프카니스탄 여행 중 첫 번째 여행이었어요. 아프간에서 몇 주간 촬영한 후 필름을 배편에 실어 집으로 보냈어요. 그 사진들을 출판을 하자마자 갑자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주요 잡지사에게 이 사진들을 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는 언제나 위험한 일이 많고 어느 순간에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해요. 안전한 곳에서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지대에만 머물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기회를 놓치는 건 실수라고 생각해요. 잠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 주세요.”

• 세 번째 질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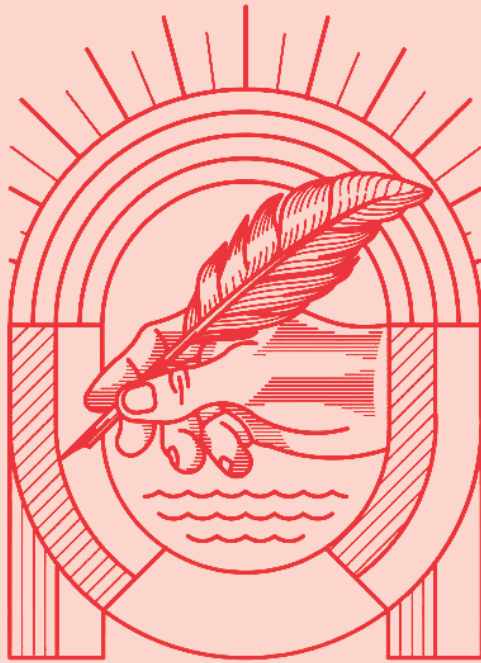
사진작가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시나요?

—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39

**스티브 맥커리** “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는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들, 그러니까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상황을 알린다면, 운이 좋다면 사람들이 기부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난민촌 자원봉사자로 온 사람 중에 샤프바트의 사진을 보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 사진이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 돕도록 만든 것이죠. 그게 제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건 과거부터 제가 해 온 일이고 제 사명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돕고, 상황을 보여 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진이나 영화, 라디오 보도가 아니라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이잖아요. 사진작가는 고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진과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4강



×

## 촬영의 기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진실된 방식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 주세요. 윤색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이 언제나 가장 좋은 사진입니다.”

## — 4 강

### 미리 보기

42 스티브 맥커리는 “사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위대한 사진작가는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요? 어떤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카메라에 담는 것일까요? 이번 강의에서 스티브 맥커리는 지난 45년간 몸소 체득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또 어떻게 사진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 성공 비법에 대해서도 알려 줍니다. 4강에서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예술적 본능을 깨우는 방법과 거장의 성공 비결에 대해 배워 봅니다.

키워드

직관

## 세 가지 위대한 질문

• 첫 번째 질문 •

사진을 찍을 때 왜 직관이 중요한가요?

• 두 번째 질문 •

좋은 사진이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찍을 수 있나요?

• 세 번째 질문 •

어떻게 하면 한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나요?

• 첫 번째 질문 •

사진을 찍을 때 왜 직관이 중요한가요?

—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스티브 맥커리 “무언가에 대해 직관적인 느낌이 들 때 그것은 당신의 뇌가 아니라 육감에서 올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거나 특정한 상황을 촬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모든 소음과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해요. 그때가 바로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당신은 마치 자동 조종 장치를 켜 것처럼 전체 장면과 상황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모든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럼 서로 다른 것들의 관계나 구조가 보여요. 그러면 사진에 담을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얼굴, 초상, 긴가민가한 것들까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진 오랜 시간 학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야 이런 중요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느냐가 꼭 좋은 사진을 많이 찍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이 무언가가 한꺼번에 굉장히 빨리 다가와 정말 멋진 것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 두 장의 사진을 찍더라도 말이죠.”

45

• 두 번째 질문 •

좋은 사진이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찍을 수 있나요?

—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스티브 맥커리** “좋은 사진이란 기억에 남는 사진입니다. 뇌리에 박히는 사진이고 가르침을 주는 사진이죠. 좋은 사진은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 보는 사진인데도 감정으로든 무엇으로든 공감할 수 있죠. 당신에게 말을 거는 사진입니다. 당신을 사로잡는 사진이죠.

그래서 무언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았다면, 무언가 당신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대상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옆에 지켜보면서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세요. 초점 거리도 다르게 해 보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상황은 끝난 거니까요.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을 사진에 담아 내야 합니다.

당신이 있는 장소에 관한 정확한 이야기를 전하려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면 진실된 방식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 주세요. 윤색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실제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누군지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그 이상으로 덧붙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이 언제나 가장 좋은 사진입니다.”

• 세 번째 질문 •

어떻게 하면 한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나요?

—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스티브 맥커리**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든 말든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아노, 글, 사진, 시와 같은 어떤 예술 활동이든 좋아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준의 성공을 기대하다 성공하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관점이에요.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세요. 중요한 것은 열정을 찾고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처음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에 집중하세요.

제가 약속하는데,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명예가 따라온다면 좋겠지만, 그게 주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 강사 연보

- 1980년 로버트 카파 금메달 수상.
- 1985년 올리비에 레봇 기념상.
- 1986년~ 국제 보도사진가 협회 '매그넘' 회원.
- 1992년 올리비에 레봇 기념상.
- 2002년 유엔 국제 사진 위원회 선정 특별 공로상.
- 2006년 로웰 토마스 금상 수상.
- 2019년 국제 사진 명예의 전당.

##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강연 시리즈

- 유발 하라리 | AI 시대 인류의 생존법
- 조지프 나이 | 누가 리더인가?
- 피터 싱어 | 실천윤리학
- 장 지글러 | 인간의 길
- 에스테르 뒤플로 | 힘든 시대의 경제학
- 리사 랜들 | 여분 차원과 암흑 물질
- 앤드류 응 | 엔지니어 앤드류 응의 AI
- 폴 케네디 | 강대국의 흥망
- 제인 구달 | 나의 이야기
- 슬라보예 지젝 | 자유론
- 스티브 맥커리 | 한 컷의 세계
- 장 티롤 | 플랫폼 제국의 비밀
- 스콧 갤러웨이 | 빅테크 기업의 흥망성쇠